



## 베트남

#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부분적인 회복세

최근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1980년대의 호황기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 외환위기와 중국으로의 투자 전환 등 주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영향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매력 높은 편이고 투자제도 상의 문제점 또한 차차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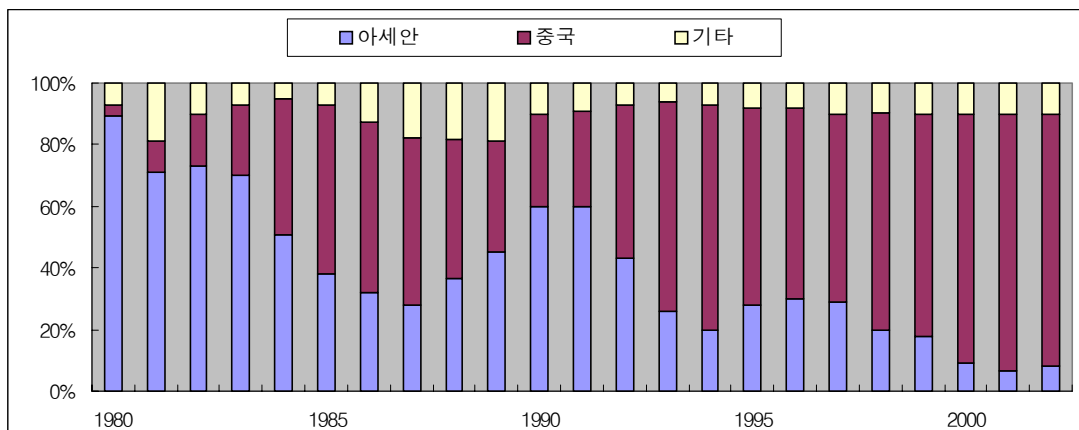
되고 있는 편이다.

아시아 통화위기이후 투자 자제 분위기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하락세에 있는 주 요인으로는 아시아 외환위기 발생을 들 수가 있는데, 외환위기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였고 상대적으로 역내 과잉

<그림>

대 아시아 직접투자 유입의 점유율



주: 아시아에서 일본과 NIEs는 제외.

자료: Mizuho Financial Group.

투자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되어 신규 투자가 전반적으로 자제되었다. 그 결과 베트남에 대한 직접투자는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이후 급감하였다.

여기에 최근 중국 투자의 붐이 가세해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전체에 대한 투자 매력에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경제 대국인 중국의 고성장과 높은 투자 선호도로 인해 동남아시아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상황이며, 특히 경쟁 대상인 섬유·전자 등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전체의 직접투자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과거에 비해 최근에는 오히려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동남아시아 중에서 베트남에 대한 투자 매력은 특별히 감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베트남에 대한 직접투자는 1990년대 중반과 같이 대형 투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내수시장 등을 감안해 선별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분야별로는 음식료, 전자, IT 등에 대한 투자가 유망한 것으로 평가되며 점차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관심대상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베트남 현재의 1인당 GDP 수준이 400달러 선에 머무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금의 경제성장 추세로 보아 경제 전체가 구매력을 갖춘 대규모 소비시장으로 변모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0년대에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각종 제도적 기반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것도 외국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합작투자 방식의 경우, 파트너와의 투자 협의나 의견 조정에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베트남 국영기업과의 합작방식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국영기업은 합작 파트너로서 적절치 않다는 평가가 많다.

### 주변국으로부터의 투자유입 지속

2003년 중 대만, 한국 등 주요국으로부터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입이 지속되었다. 신규 외국인투자 허가 금액별로는 대만이 3.9억 달러, 한국이 3.4억 달러, 중국이 1.4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아시아 국가의 투자가 많은 편이고, 중국의 투자 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한편, 투자 누계별로 보면 싱가포르가 허가기준으로 전체의 18%를 차지해 가장 크고, 실행 기준으로는 일본이 16%로 최대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초반에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그후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기업들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최근 양국간 무역협정의 발효로 점차 미국 기업들의 투자관심이 높아져 대규모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6개의 미국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해 호치민시 남부의 Phan Thiet에 10억 달러 규모의 디즈니랜드식 테마공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 국별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투자 건수	투자 금액(백만 달러)
대한민국	만국	194	390
버진아일랜드	국	187	344
중홍	국	31	270
호주	국	61	138
일본	국	43	119
	주	13	111
	본	53	100

자료: EIU, Country Report, 2004.

**베트남의 WTO 가입시 유리한 입지에 설 듯**

베트남은 아세안 회원국으로서 조만간 WTO 가입이 최종 결정되는 경우 인접한 대중국 사업의 거점으로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이미 WTO에 가입하였고 베트남도 2004년까지 가입할 예정이어서, 양국간 관세를 하락으로 대중국 사업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리적인 면에서 베트남은 대중국 사업의 거점으로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 현재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자동차로 국경

인근에 접근하려면 예전에는 3시간이 걸렸지만, 도로 정비 후 현재는 약 1시간 45분 만에 접근이 가능해졌다. 이는 베트남 북부의 주요 항만 도시인 하이퐁까지 걸리는 2시간보다도 더 가까워, 베트남을 거점으로 한 대중국 진출사업은 한층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베트남이 참여를 추진 중에 있는 아세안 자유무역협정(AFTA)에 따라 무역 자유화가 진전되고 관세 및 제도 상의 자유화가 이루어질 경우, 산업별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의 투자확대도 예상되고 있다.

【김 종 호】